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경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삶과 죽음

신윤식

삶에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으나
죽음이라는 한 길로만 나아간다.

삶의 그 전부는 알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모른 채 그냥 살고 싶어 한다.

삶은 나의 일이기에 소중하다 하면서
죽음은 남의 일로 여기며 가볍게 여긴다.

삶은 지금 나의 현실로 여기지만
죽음은 나에게서 멀다고만 생각한다.

삶을 시작할 땐 주먹을 꼭 쥐지만
죽음으로 끝날 땐 그 주먹을 펴게 된다.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라 하여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죽음에 태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삶에 가벼움이 되리니

죽음 이후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삶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6.2

발행호수 제21권 22호

성 경은 교회를 가
리켜서 그리스도
의 몸이라고 합니다. 따라
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증거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만약 그리스도
의 몸 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와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증거는 머리 되신 분
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머리되신 분의 말씀에만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머리 되신 분의 말씀에 온전히 종
속되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힘으로 여기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교
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개념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발생한 지체라는 증거는 또 무엇
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공로는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으
로 철저히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공
로와 은혜에만 마음을 집중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람의 수의 민
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예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 교회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두 세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그 마음
에 품고 있는 두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수
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아무
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12:6-12

시인과 부인

그럼에도 사람의 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자신
을 부풀리는 것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갈
망하고 집착하는 것을 보면 실상 교회의 만족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확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
니다. 이처럼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죄이
며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말씀을 하신 것
입니다.

교회의 몸집이 크건 작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
가 아니면 천국가지 못할 자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
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
상에서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에는 소위 착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수도록
합니다. 착하다는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집중한 채 자기 확대를 위해 살아가
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용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
니다. 애당초 교회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용서는 귀찮은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생명의 세계의 신비함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
뻐하게 되는 경험과도 상관없는 말 그대로 무늬만 신자인
종교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확대로 인한 만족과 기쁨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
다. 인간의 욕망 자체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기 확대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성취감을 누린다고 해도
결정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단절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
께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 있기에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
세는 겉으로 드러난 세계에서만 통용되고 육신의 문제에
만 관여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

고 통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혼까지 억압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신자라면 비록 육신을 억압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해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자기 확대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확대와 자식의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라면 자기 확대가 인간의 환상이며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 확대에 집착한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참새와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참새는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에 팔릴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무가치한 참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머리털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과연 귀한 존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늘의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권세 가진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가지고도, 세상의 좋은 것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와 귀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

엘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애굽 군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애굽은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어린양의 피로 인해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어린양의 피의 효력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의 효력으로 인해 모든 더러움이 가려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 받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더러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린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존재이고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린양의 피의 효력으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은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린양의 피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들 역시 이방인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의 풍습은 어린양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대를 위해 살고 자기 확대를 만족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삶들이 있어야 하고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신자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은혜의 세계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신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은 천국의 길에 세상의 것은 무가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김 받게 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거룩

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효력이며 용서로 인해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가장 복된 은총으로 마음에 두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용서의 은총을 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이며 외식입니다.

물론 신자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하나님에 베푸시는 은총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의한 집착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에 베푸시는 복으로 여긴다면 단언컨대 머리 되신 분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8,9절)고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시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를 시인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거룩한 세계로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은혜며 선물임을 믿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그는 세상이 복으로 여기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자신을 거룩한 자로 일컬음 받게 한 용서의 은총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면 자연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보다 세상이 복으로 여기는 것을 복으로 간주하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복으로 자신을 확대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낱말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뜻을 두어야 하는 것이 교회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0절)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야 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은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복으로 간주하며 예수님의 용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야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존귀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총이 아니면 그 결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늘 용서의 은총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본 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다른 시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두 구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해도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짧거나 귀에 익숙한 내용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먼저 주지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일오후설교

시 117:1-2

인자와 진실

(121강 5.12일 설교)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이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만 알 수 있다면 잘못된 신앙으로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특권이 되어서 죄가 용서되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이방나라를 세워서 가차 없이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죄를 범한 자는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습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세계로 이끌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행하심을 아는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찬송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와 구원 받아야 할 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의 정성을 보이며 그 정성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베푸시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고받는 관계에서 찬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신앙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할렐루야”** 로 말합니다. 여호와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육신의 잘됨을 하나님의 인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잘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음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거나 머나먼 미래에 생각해도 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육신의 잘됨에 매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며 무엇으로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있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면 육신의 잘됨과는 비할 바 없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 선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웃고 울며 삽니다.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 나쁜 일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다고 해도 생명으로 인한 소망이 위로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일은 사소한 것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누리게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신자는 이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이 안목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구별입니다.

육신의 잘됨의 여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잘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한 자의 종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육신이 잘되고 못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인자와 진실하심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에게는 새 언약 이전에 기존의 다른 언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위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이제 기존의 언약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옛 언약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에 실패할 것임을 아셨으면서도 왜 옛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기 구원을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자기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구원하실 것인데 왜 번거롭게 옛 언약을 주시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설교
렘 31:23-34

새 언약

(79장 5.1일 설교)

물론 언약이 인간의 구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 옛 언약은 번거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처음부터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옛 언약이 먼저 팔히 주어져야 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방식인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0절을 보면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고 합니다. 신 포도를 먹으면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조상이 죄를 범한 탓으로 돌렸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징벌을 조상의 죄 때문인 것으로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옛 언약, 즉 율법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비록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자로 여겨진다 해도 인간은 늘 율법에 대해 실패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방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가 없음을 예레미야가 안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천을 기준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실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아무도 없음이 옛 언약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인간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의 실천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는 날이 오게 되면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마음에 기록된 법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34절).

옛 언약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머리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율법 전문가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옛 언약 방식에 매인 것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면 신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들여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옛 언약 방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옛 언약 방식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복의 근거를 인간의 행함에 두게 됩니다. 열심히 행한 자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신을 복의 세계에 있게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4장
교 독 : 8(시14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220장
성 경 : 눅 12:6-12
말 씀 : 시인과 부인(6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9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02장
기 도 : 조길옥 집사
찬 송 : 303장
성 경 : 시 120:1-7
말 씀 : 속이는 혀(12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2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3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신윤식 목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집회 인도를 위해 출국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이인혁 집사

이단 ③

권신찬의 구원관도 이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이요한이 권신찬 구원파에서 분파되어 그 대부분이 권신찬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박옥수의 구원관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는 것이다.

삶에서 나타나는 죄가 있음을 인정은 하나 박옥수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범죄로 구분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는 것으로 해결되었고,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이미 예수의 용서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이기에 용서를 구할 필요 없이 범죄를 인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박옥수는 회개가 아닌 자복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10)고 말한다.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은혜가 더할수록 신자의 감사와 찬송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일 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또한 지금은 은혜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한다. 구약 자체가 이미 완성된 예언이므로 더 이상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애당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무지일 뿐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할 실천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말한 것이다(갈 3:24).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개인이 재산을 비축하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결국 자신들의 단체에 헌금하게 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마치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 또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자의 특징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파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깨달음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파의 교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것임을 신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함과 불의함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깨달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마음 두게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